

‘코로나 직격탄’ 무안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 83명

지난해 570명서 급감...활주로 활용률도 0.6% 그쳐 지원 시급
코로나 검역위해 인천공항 일원화로 국제선 연말까지 운항 불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무안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난해 570명에서 올해 83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선 운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 무안국제공항 등 지방 국제공항은 최소 올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계획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공항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활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공항이 전국 14개 공항 중 5곳이나 됐다. 활주로 활용률이 저조한 순으로 보면 원주 (0.1%), 사천 (0.2%) 군산 (0.3%), 포항 (0.3%), 무안공항 (0.6%)이었다. 활주로 활용률 0.1%, 0.6%라는 것은 1000편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에 항공기가 1편, 6편만 이착륙했다는 의미다.

무안공항은 지난 3월 4일 국제선·국내선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가 국내선만 7월 17일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주 3회 금·일·월, 왕복 한편씩 제주노선만 운항 중이다.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지사 관계자는 “코로나 19 때문에 최소 올 연말까지는 무안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는 어려

울 것 같다”며 “이용객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코로나 19 검역 관리를 위해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자리 잡은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은 각각 6.3%, 6.5%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연간 항공기 14만 편을 수용할 수 있는 무안공항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항공기 6585편이 이착륙하면서 활주로 이용률이 4.7%까지 올랐으나 지난 3월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활주로 활용률이 0.6%까지 떨어졌다.

다만 강원 양양공항만이 지난해 1%에서 올해 4.1%로 4배가량 활주로 이용률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역행사과 공항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이용객을 늘린 결과라고 소 의원은 전했다.

활주로 이용률이 줄면서 공항 이용객도 급감했다. 하루에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안공항 국내선 터미널 이용객은 지난 한 해 동안 20만8000명이 이용했으나 올 1~8월까지의 2만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570명이던 것이 8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광주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 2019년 5562명에서 4625명으로 줄었고, 여수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도 같은 기간 1753명에서 1583명으로 소폭 줄었다.

적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무안공항 적자(영업이익 손실)는 지난 2019년 121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 적자가 1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대다수 지방공항이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아 이용객이 급감,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비대면 공연장으로 변신한 상무소각장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인 광주 서구 상무소각장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소각장 문화스튜디오’가 설치돼 시민들에게 볼 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6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한 스튜디오 개설 오프닝 공연을 앞두고 공연자들이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소각장 문화스튜디오에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마다 공연이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하남산단에 건립

11억 들여 내년 3월 개소

광주시 민선 7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내년 3월 개소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하남산단 내 혁신지원센터 주차장 부지에 작업복 세탁소를 마련하기로 하고 최근 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애초 하남산단 내 부지를 물색했지만 적지를 찾지 못해 인근 광산구 신가

동 유휴 사유지에 건립하려다가 입지를 다시 바꿨다.

신가동 부지는 하남산단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시는 고민 끝에 하남산단 내에 다시 부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동을 목표로 추진했던 세탁소도 내년 3월까지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이용성 광주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와 위치 등을 결정하느라 3

년차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모두 11억원을 들여 529㎡ 부지에 하루 1500~2400벌을 세탁·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세탁비는 김해 사례 등을 참고해 한벌당 500~1000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치구 간 경계 조정 환영”

광주 참여자치21

광주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6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 제안을 환영한다”며 “구청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할 뿐 아니라 광주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경계 조정은 시민 편의와 상생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이용섭 시장의 조정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인구소멸·도정 관련 특별법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김영록 전남지사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한전공대, 인구소멸, 여순 10.19사건 등 전남도와 관련한 각종 특별법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감형 정책회의를 통해 “그동안 도정 현안으로 대두된 한전공대와 여순10.19사건, 인구소멸지역특별법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실감장들부터 관련 상임위를 찾아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오늘 전남과 서울시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경제도 절차 4단계 중 1단계를 줄일 수 있어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차 긴급민생지원금과 관련해 김 지사

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중위험시설 4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함께 임신부와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고교생 비대면 학습지원비 등은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철저히 챙기고 홍보가 필요하다”며 “2018년부터 추진한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를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도 공직자와 소방, 경찰 등 많은 분들이 도민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코로나 발생이나 큰 사건 사고없는 연휴가 된데 대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은 감염차단에 한몫을 단단히 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갖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금고 1순위 광주은행, 2순위 KB국민은행

신용도·시민이용 편의성 등 평가

광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6일 차기 시금고 1순위에 광주은행, 2순위에 KB국민은행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과 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을 평가했다.

광주시는 내부절차를 거쳐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 1금고는 광주은행이, 2금

고는 KB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광주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정된 금융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4년간 시 금고로 맡게 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등 특별회계 10개와 지역개발기금을, 제2금고는 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 17개를 담당하게 된다.

2020년 광주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조5673억원, 특별회계 1조1345억원, 기금 4283억원 등 총 6조1407억원이다.

이번 금고 유치전에는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도 참여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간호·보건직 등 감염병 관리 인력 36명 채용

광주시가 감염병 관리 신규 인력 36명을 채용한다. 광주시는 “12월 26일 제3회 지방직 임용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질병 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역 단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 8급 18명, 9급 9급 11명, 보건연구사 7명을 뽑는다.

채용 분야별로 관련 자격, 면허증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 면접시

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사람이 응시 대상이다. 응시 원서는 11월 16~20일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접수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17일이다.

김종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관리 전담 부서 기능과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추가 임용 시험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